

##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김혜금<sup>1</sup> 조혜영<sup>2</sup>

The Effect of Child Neglect and Abuse by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Kim, Hye Gum<sup>1</sup> Jo, Hye Young<sup>2</sup>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4차년도 패널 데이터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및 주 양육자 2,378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학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영향력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경로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방임·학대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방임·학대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모색과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주제어** 부모의 방임·학대,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또래애착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sup>1</sup> 제1저자: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부교수

<sup>2</sup>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박사수료(e-mail : johyey@hanmail.net)

## I. 서론

아동기는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변화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관계형성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과 규범 등을 내면화하여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은 향후 사회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Richman, Bowen 그리고 Woolley(2004)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부터 발생하는 학교중퇴 등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의 습득 기회를 잃게 하여 사회에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즉,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아동은 행동 및 동기 등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아동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다양한 환경적·심리정서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발달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행동양식, 습관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주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은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을 이끈다. 일반적으로, 방임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며(Depanfilis, 2000),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법제처, 2015)”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방임과 학대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 양육자의 방임과 학대는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 비행 등 반사회적인 행동과 우울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 시킨다(중앙아동전문기관, 2012; Appleton & Sidebotham, 2012). 따라서, 주 양육자의 방임과 학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은 양육자와 아동 간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방해가 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DiLeonardi, 1993). 특히, 아동기의 방임과 학대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어(Brezo, Paris, Vitaro, Hebert, Tremblay, & Turecki, 2008; Tower, 1993)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 양육자로부터의 방임과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aquehais, Oquendo, Baca-Garcia, & Sher, 2010; Brezo et al., 2008; Howe, Cicchetti, Toth, & Cerrito, 2004).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호소하였으며,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금, 2015; 김혜금, 양숙경, 2014; 박기원, 2014;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이윤아, 최진아, 2015). 또한, 학대를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조은정, 2013) 이들이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인식과 관계가 있다. 자아인식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나인데 개인 스스로의 성격, 동기, 신념, 가치관 적성 등을 알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판단하여 자신의 결정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하여 조절하는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자아인식은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 등을 기반으로 발달하며, 다양한 환경의 경험과 해석,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앎’과 관련이 깊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등과 관련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제시하였다.

자아인식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Rosenberg, 1986)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Harter, 1985). 아동과 주 양육자 간의 긍정적이며, 질 높은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Rosenberg 1986). 자아탄력성은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통제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긍정적인 정서 등이 함양된다(Block, 1982).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므로(임경희, 2010) 높은 자아탄력성은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으로(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고선주, 박숙희, 2006) 방임과 학대 등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바람직한 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이지만, 높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상쇄시켜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박가화, 이지민, 2014). 진로정체감은 개인 스스로가 적성, 흥미 및 능력 등 진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의미한다. 즉, 진로정체감은 상황에 알맞은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Holland, 1997) 학령기 아동의 높은 진로정체감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끈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학습동기와 흥미를 높여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높은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처 능력이 탁월하여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Bynner, 2001). 이미 많은 연구에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기민희, 김미숙, 2014;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자아존중감 역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아, 최진아, 2015). 즉 자아인식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사용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높은 자아인식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정서적 상태를 완화시켜 원만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변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높은 자아인식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방임과 학대 등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피력하기 보다는 흠치기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하여(Tower, 1993) 의사소통기술이 요구되는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Taussig & Culhane, 2010). 그런데, 모든 아동이 학대와 방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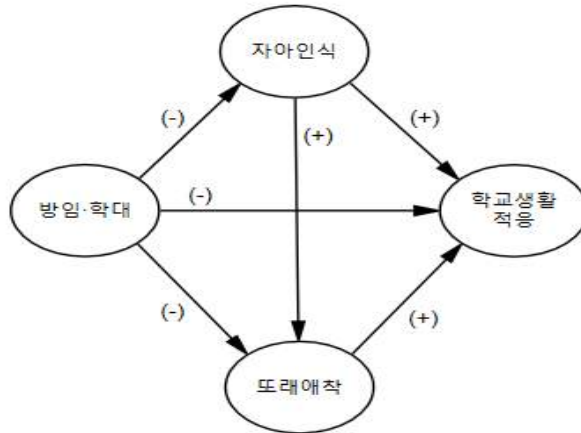
경험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저해하지만 친구관계로부터 위안을 얻고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덜 갖게 한다(김현주, 홍상황, 2015;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이는 학령기 아동의 일상생활에 또래애착이 중요하며, 아동의 높은 또래애착은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상쇄하여 완충작용을 하는 학교생활적응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지니고 또래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받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의 방임 및 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의 시도를 통하여 이들의 자아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모색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기민희, 김미숙, 2014; 김현주, 홍상황, 2015; 김혜금, 2015; 김혜금, 양숙경, 2014; 박기원, 2014; 안지연 외, 2014; 오미경 외, 2011; 이윤아, 최진아, 2015; 조은정, 2012; 조은정, 2013)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아인식(기민희, 김미숙, 2014; 김현주, 홍상황, 2015; 오미경 외, 2011; 이윤아, 최진아, 2015; 임경희, 2010)과 또래애착(김현주, 홍상황, 2015; 이재인 외, 2014), 사회적 지지(조은정, 2013)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 등의 변인들을 개별적인 요인으로 하여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으며, 자아인식과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가 부족한 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받은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변인들이 보호요인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나,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써 매개역할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비롯하여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방임·학대 요인을 완화하여 학령기 아동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알아보하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통하여 건강한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은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며, 이때, 자녀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자아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모색과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에서 4차년도 데이터 중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부모 2,3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부모의 방임·학대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일 뿐 아니라 또래친구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378)

변인(학령기 아동)	N	%	변인(학령기 아동)	N	%		
성별	남	1,098	46.2	출생년도	1999년도	7	87.5
	여	1,280	53.8		2000년도	2,233	6.7
재학여부	학교 다님	2,376	99.9	2001년도	138	5.8	
	학교 안다님	2	.1				

## 2. 연구 도구

### 1) 방임·학대

방임·학대를 알아보기 위해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의 방임·학대 하위영역은 ‘방임’(4문항), ‘학대’(4문항)로 총 8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학대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방임·학대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88로 나타났다.

### 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문선모(1977)와 이상필(1990)의 척도를 참고로 민병수(1991)가 제작하고, 정화실(1991)이 사용한 척도 가운데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의 하위영역(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구의 타당성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학교규칙이 .5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은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며, 교우관계 문항 가운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예: 4번 문항\_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을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은 학습활동(5문항), 교우관계(4문항), 교사관계(5문항) 총 14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생활적응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782, 교우관계 .716, 교사관계 .850으로 나타났다.

### 3) 자아인식

자아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한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의 문항과 Block & Krema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유성경, 심혜원(2002)의 문항을 권지은(2003)이 사용한 문항, 송연옥(2008)이 자아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문항, 공인규(2008)가 진로정체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자아인식으로 조사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한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10문항), 자아탄력성(14문항), 자아정체감(8문항), 진로정체감(8문항)으로 총 4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아정체감의 신뢰도가 .585로 나타나 자아인식 도구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삭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인식의 하위영역은 자아존중감(10문항), 자아탄력성(14문항), 진로정체감(8문항) 총 32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인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인식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838, 자아탄력성 .875, 진로정체감 .888로 나타났다.

### 4) 또래애착

또래애착을 알아보기 위하여 Ar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번안·수정환

김지연(1995)과 황미경(2010)의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사용된 또래애착은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3개의 하위내용(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애착 변인인 신뢰와 의사소통 문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녀의 또래애착 하위영역은 신뢰(3항), 의사소통(3문항) 총 6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또래애착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애착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신뢰 .843, 의사소통 .812로 나타났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Cronbach's  $\alpha$  값 .7이상과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여 요인부하량 .5이상만을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종단자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결측자료 분석(missing values)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EM algorithm 방법을 사용하여 결측치(missing data)를 대체하여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변인의 평균( $M$ )과 표준편차( $SD$ )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인인 방임·학대 평균은 1.77점( $SD = .45$ )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 평균은 2.87점( $SD = .53$ ), 교우관계 평균은 3.14점( $SD = .45$ ), 교사관계 평균은 2.93점( $SD = .61$ )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14점( $SD = .44$ ), 자아탄력성 평균은 3.00점( $SD = .42$ ), 진로정체감 평균은 2.95점( $SD = .57$ )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의 신뢰 평균은 3.21점( $SD = .55$ ), 의사소통 평균은 3.14점( $SD = .52$ )으로 나타났다.

### 1.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N=2,378)

변인		M	SD	변인		M	SD
독립변인	방임·학대	1.77	.45	매개변인	자아존중감	3.14	.44
	학습활동	2.87	.53		자아탄력성	3.00	.42
종속변인	학교생활적응	3.14	.45		진로정체감	2.95	.57
	교우관계	2.93	.61		신뢰	3.21	.55
	교사관계	2.93	.61		의사소통	3.14	.52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변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은 방임·학대( $r = -.37, p < .01$ )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r = .44, p < .01$ ), 자아탄력성( $r = .38, p < .01$ ), 진로정체감( $r = .30, p < .01$ )과 또래애착의 신뢰( $r = .30, p < .01$ ), 의사소통( $r = .32, p < .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방임·학대( $r = -.30, p < .01$ )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r = .42, p < .01$ ), 자아탄력성( $r = .51, p < .01$ ), 진로정체감( $r = .30, p < .01$ )과 또래애착의 신뢰( $r = .53, p < .01$ ), 의사소통( $r = .52, p < .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방임·학대( $r = -.26, p < .01$ )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r = .32, p < .01$ ), 자아탄력성( $r = .37, p < .01$ ), 진로정체감( $r = .28, p < .01$ )과 또래애착의 신뢰( $r = .30, p < .01$ ), 의사소통( $r = .29, p < .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3〉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 (N=2,378)

구분	1-①	2-①	2-②	2-③	3-①	3-②	4-①	4-②	4-③
1. 방임·학대									
① 방임·학대	1								
2. 자아인식									
① 자아존중감	-.40**	1							
② 자아탄력성	-.23**	.56**	1						
③ 진로정체감	-.19**	.34**	.43**	1					
3. 또래애착									
① 신뢰	-.32**	.41**	.47**	.28**	1				
② 의사소통	-.30**	.40**	.46**	.28**	.77**	1			
4. 학교생활적응									
① 학습활동	-.37**	.44**	.38**	.30**	.30**	.32**	1		
② 교우관계	-.30**	.42**	.51**	.30**	.53**	.52**	.48**	1	
③ 교사관계	-.26**	.32**	.37**	.28**	.30**	.29**	.47**	.47**	1

\*\* $p < .01$



## 2.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의 개념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확적합을 위해  $\chi^2$  값을 확인하게 되는데, 표본크기 및 관측변수와 잠재변수를 가진 모형의  $p$ 값이 연구자의 유의수준( $p = .001, p = .01, p = .0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확적합  $\chi^2$  값이 영가설에 채택되면 이상적인 모형이지만,  $\chi^2$  값은  $N$ 값에 민감하므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SRMR은 .05이하 값이면 적합하며, 증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 값은 .9이상이고,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하는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10초과는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47.924(df = 17, p = .000)$ , SRMR = .0350, IFI = .968, TLI = .948, CFI = .968, RMSEA = .07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hi^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p$	SRMR	IFI	TLI	CFI	RMSEA
값	247.924	17	.000	.0350	.968	.948	.968	.076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가 1개인 부모의 방임·학대 변인을 제외한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인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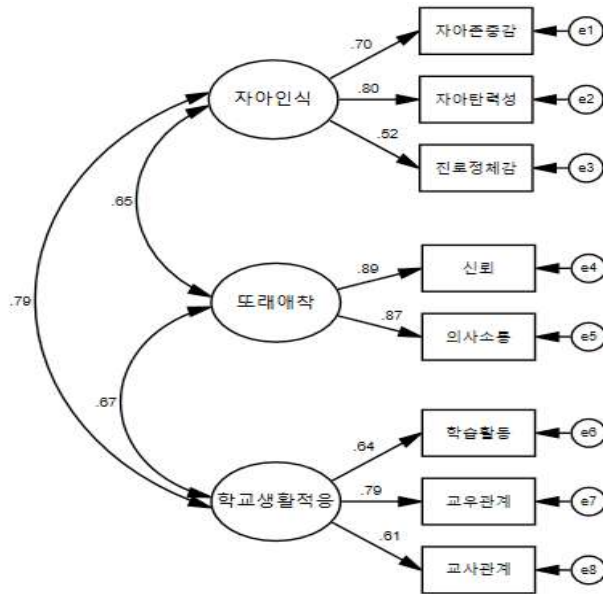
###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hi^2 = 428.714(df = 22, p = .000)$ , SRMR = .0407, IFI = .949, TLI = .916, CFI = .949, RMSEA = .088로 나타났다. 따라서,  $\chi^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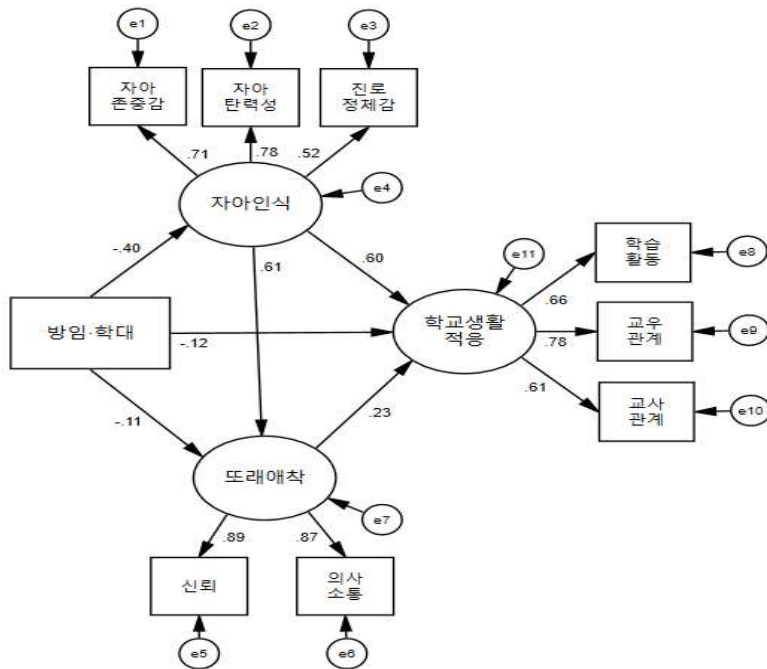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p$	SRMR	IFI	TLI	CFI	RMSEA
값	428.714	22	.000	.0407	.949	.916	.949	.088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분석



[그림 3] 구조모형 분석

다음 <표 6>은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방임·학대,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또래애착 변수들의 표준화계수( $\beta$ )는 -.40부터 .61범위에 있으며, 임계치(C.R.)는 모든 변수가 기준치  $\pm 1.96$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방임·학대가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beta = -.40, p < .001$ ), 방임·학대가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beta = -.11, p < .001$ ), 자아인식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beta = .61, p < .001$ ), 자아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beta = .60, p < .001$ ),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beta = .23, p < .001$ ), 방임·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beta = -.12, p < .001$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 $\beta$ )	S.E.	C.R.	p
자아인식 ← 방임·학대	-.26	-.40	.017	-14.945	***
또래애착 ← 방임·학대	-.12	-.11	.023	-5.092	***
또래애착 ← 자아인식	1.01	.61	.056	17.956	***
학교생활적응 ← 자아인식	.71	.60	.050	14.072	***
학교생활적응 ← 또래애착	.16	.23	.022	7.33	***
학교생활적응 ← 방임·학대	-.09	-.12	.016	-5.886	***
자아인식-진로정체감 ← 자아인식	1.00	.52			
자아인식-자아탄력성 ← 자아인식	1.11	.78	.049	22.654	***
자아인식-자아존중감 ← 자아인식	1.05	.71	.048	21.981	***
또래애착-신뢰 ← 또래애착	1.00	.89			
또래애착-의사소통 ← 또래애착	.92	.87	.023	40.802	***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 학교생활적응	1.00	.66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 학교생활적응	.99	.78	.035	28.598	***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 학교생활적응	1.07	.61	.044	24.375	***

다음 <표 7>은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잠재변수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표 7>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구조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자아인식 ← 방임·학대	-.398		-.398
또래애착 ← 방임·학대	-.109	-.242	-.351
학교생활적응 ← 방임·학대	-.123	-.319	-.442
또래애착 ← 자아인식	.609		.609
학교생활적응 ← 자아인식	.602	.139	.741
학교생활적응 ← 또래애착	.227		.227

방임·학대는 자아인식에 직접적( $\beta = -.398,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에는 직접적( $\beta = -.109, p < .001$ ), 간접적( $\beta = -.242,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 $\beta = -.123, p < .001$ ), 간접적( $\beta = -.319,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인식은 또래애착에 직접적( $\beta = .609,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 $\beta = .602, p < .001$ ), 간접적( $\beta = .139,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 $\beta = .227, p < .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며, 이때,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자아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모색과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방임·학대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학대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특성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과 부적관계임을 밝힌 김현주와 홍상황(2015), 이윤아와 최진아(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부모의 과보호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는 부적관계이지만,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관계임을 밝힌 기민희와 김미숙(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때문에 부모의 방임·학대는 자녀의 낮은 자존감을 이끌어(조은정, 2013; Braquehais et al., 2010; Brezo et al., 2008; Howe et al., 2004)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주 양육자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때,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이윤아와 최진아(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높은 자아탄력성은 주 양육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밝혀졌는데(기민희, 김미숙, 2014; 오미경 외, 2011)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학대와 방임의 경험으로부터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 내의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aussig & Culhane, 2010) 김현주와 홍상황(201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변인이 완전매개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써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들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높은 자아인식은 안정적인 또래애착 관계를 맺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Richman et al., 2004) 학교생활에 부적응 아동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고, 담임교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공격성은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안지연 등, 2014). 특히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미성숙한 자아는 부모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습되어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다(Swogger, You, Cashman-Brown, & Conner, 2011). 즉, 아동의 높은 공격성은 또래애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줘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을 낮추고,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탁월하므로(지은선, 장미희, 2010)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아동은 발달함에 있어서 부모 및 교사 등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지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아탄력성 역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기민희, 김미숙, 2014; 오미경 등, 2011)과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임경희, 2010)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하게 하여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이끌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부모의 방임·학대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아인식에 영향을 받아 이중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또래애착이 초등학교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한다고 밝힌 이재인 등(2014)의 연구결과와는 일부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변인을 방임과 학대로 하여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이재인 등(2014)의 연구에서는 부애착, 모애착으로 하여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의 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이한 결과가 도출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중요한 변인이라 밝혀진 만큼, 바람직한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일지라도 긍정적인 또래애착을 형성할수록 높은 자아인식을 형성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또래와의 애착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더불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학대예방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방임과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부정적인 자아인식이 회복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특성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자아인식

과 또래애착 등 심리·정서적인 내적특성이 매개효과로 나타난 만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대화기법, 상호작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현장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의 제공과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기애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한다.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와는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또래와는 수평적인 관계이므로 또래 집단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성공은 또래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아동은 다양한 규칙을 습득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 통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이 타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행동을 보일 때 또래로부터 관심과 호감을 갖게 되므로(Coie, Dodge, & Kupersmidt, 1990)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이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를 사용하여 부모의 방임·학대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인식 및 또래애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녀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탐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한 후, 자아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모색과 긍정적인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panel data)는 시간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결측치가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 결측치 처리를 위해 EM algorithm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결측치는 추정량의 비효율성으로 추정해야 할 모수 식별의 한계를 갖는다.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첫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한 다집단구조방정식분석(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SEM)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민희, 김미숙 (2014).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9**, 484-612.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혜금 (201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55-371.
- 김혜금, 양숙경 (2014).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117-131.
- 문선모 (1977). 학생의 배경적 특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학생지도 연구**, 4, 19-28.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가화, 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 35(1), 1-15.
- 법제처 (2015).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에서 2015년 8월 28일 인출.
- 송연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아동교육**, 20(3), 165-180.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이상필 (1990).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따른 학업성적 및 행동특성의 차이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아, 최진아 (2015). 부모의 학대,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3(3), 331-339.
-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고선주, 박숙희 (2006). 청소년의 주체형성을 위한 환경요소들에 관한 종합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3), 27-49.
- 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2014). 초등학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자기효능감, 학교적응 간의 관계 구조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345-367.
- 임경희 (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9(2), 217-233.
- 정화실 (1991).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2012).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학대경험 아동집단과 비경험 아동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9, 138-164.
- 조은정 (2013). 사회적 지지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1(1), 17-26.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은선, 장미희 (2010).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다사용, 우울-불안,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40(5), 642-649.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https://archive.nypi.re.kr>에서 2015년 6월 20일 인출.
- Appleton, J. V., & Sidebotham, P. (2012). Child protection and mental health. *Child Abuse Review*, 21(3), 153-15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lock, J. H.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2), 281-295.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aquehais, M. D., Oquendo, M. A., Baca-Garcia, E., & Sher, L. (2010). Is impulsivity a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51(2), 121-129.
- Brezo, J., Paris, J., Vitaro, F., Hebert, M., Tremblay, R. E., & Turecki, G. (2008). Predicting suicide attempts in young adults with histories of childhood abus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3(2), 134-139.
- Bynner, J. (2001). Childhood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in social exclusion. *Children & Society*, 15(5), 285-301.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panfilis, D. (2000). How do I determine if a child is neglected? In: H. Dubowitz & D. Depanfilis (Eds.), *Handbook for child protection practice* (pp. 121-126). NY: Sage Publications.
- DiLeonardi, J. W. (1993). Families in poverty and chronic neglect of children. *Families in society*, 74(9), 557-562.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Howe, M. L., Cicchetti, D., Toth, S. L., & Cerrito, B. M. (2004). True and false memories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5), 1402-1416.
- R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 (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Press.
-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Melbourne, FL: Krieger.
- Swogger, M. T., You, S., Cashman-Brown, S., & Conner, K. R. (2011). Childhood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riminal offenders. *Psychiatry Research, 185*(3), 363-367.
- Taussig, H. N., & Culhane, S. E. (2010). Emotional maltreatment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preadolescent youth placed in out-of-home ca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1), 52-74.
- Tower, C. C. (1993).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2nd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ld neglect and abuse by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chool-aged children's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data of fourth wave Korean Child-Youth Panel Survey(KCYPS) including parents' child neglect and abuse,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A total of 2,378 children and their par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ediating effects responded to the survey.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e model had favorable goodness of fit and the results of structure models on each path were as follows. First,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aption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 child neglect and abuse, but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ir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Second, parent's child neglect and abuse influenced on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y partial mediators, their self-awareness and peer attachment. These findings showed practical way to increase school-aged children's self-awareness and positive peer attachment.

**Key words** child neglect and abuse by parents, school adjustment, self-awareness, peer attachment

논문투고	15.12.14
수정원고접수	16.01.29
최종게재결정	16.01.30